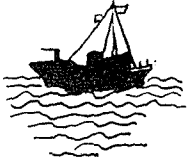


#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7 >



梁 啓 超 著  
沈 懋 俊 譯

## 第四章 三 禮

三禮의 名稱은 比較的 僻 늦게 일어났다. 從前에는 없었던 것이 東漢末에 鄭玄이 周禮·儀禮·禮記를 註하여 비로소 三禮라고 合稱하였든 것이다. 卽 現行 十三經의 세 책이다. 이 세 책은 이제까지 한가지 性質로 보아 왔는데 其實은 틀렸다. 南宋以後 禮記를 五經의 하나로 삼아 왔고, 明清의 科擧에서도 禮記로서 三禮를 代表시켰지만 實은 틀린 일이다. 漢代의 六藝에는 禮古經—一名 士禮—가 있었을 뿐으로 모두 17篇인데 東漢에 이르러 또 儀禮로 改稱되었다. 禮記는 儀禮를 解釋한 것으로서 記는 卽 傳이니 經과는 對立된 것이며 經과 混沌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比喩를 들어 보겠다. 易에다 比喩하면 儀禮는 마치 卦辭·爻辭와 같고 禮記는 마치 十翼과 같다. 春秋에 비유하면 儀禮는 春秋經과 같고 禮記는 三傳(譯註: 公羊傳·穀梁傳·左傳)과 같다. 그러므로 三禮는 三部로 나눌 수 있다. 즉 禮記는 大戴禮記와 小戴禮記를 包含해서 한 部로 周禮·傳禮는 각각 한 部로 되는 것이다. 三部는 同等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周禮의 原名은 周官으로서 西漢末에 劉歆이 비로소 改稱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兩名이 그냥 通用되고 있다. 이것과 儀禮와의 區分은 이리하다. 즉 儀禮는 唐開元禮나 大清通禮와 같이 社會에서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法令이 아닌데 대해서 周禮는 卽 唐六典이나 大清會典과 같이 行政法으로서 政府의 固定制度이다. 그 眞僞는 徐徐히 말하겠지만 根本的으로 그것은 禮가 아니라 官制이다. 그러므로 原名은 周官이라하여 周代의 官制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먼저 四部의 性質을 先 알아야만 다른 問題를 말 할 수 있다. 嚴格히 말 한다면 「禮」는 單 物 뿐이니, 곧 儀禮·禮記이며, 周官은 것혀 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鄭玄 이후 모두들 周官을 禮의 하나로 看做하여 왔기에 方便的으로 그냥 三禮라 부르는 것이다.

### 1. 儀 禮

먼저 儀禮를 말 하고저 하는데 儀禮는 아무런 眞僞

問題가 없는 것이니, 西漢 이후의 사람들이 僞造한 것은 決대로 아니다. 漢書藝文志에서는 『漢 나라가 興하자 魯의 高堂生이 士禮 17篇을 傳하였다. 孝宣帝 때에 이르러 后倉이 가장 高明하였는데 戴德·戴聖·慶普는 모두 弟子로서 세 사람은 學官에 세워졌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이 볼 때 이 17篇의 禮는 春秋左傳에 記載된 禮와 같은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大概是 孔子가 말한 禮로서 周代에 일직 한번 通行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도대체 이 17篇이 어느 때에 비로소 있었던 것인지를 묻기만 하면 된다. 이제까지 周公이 禮·樂을 制作하였다는 說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儀禮는 周公이 傳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뒤에 三禮를 研究하던 사람들은 三禮가 모두 周代에 通行되던 것이라고 認定하면서 하나로 弄망 그럴 생각을 했다. 矛盾이 있게 되면, 或은 이를 擇하여 저를 論駁하거나, 或은 양면 모두 좋게 調整하거나, 或은 附會하거나, 或은 曲解하거나 하여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精力을 헛되히 消耗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其實은 周禮가 出現된 것은 가장 늦으며 二部의 禮記도 漢 宣帝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책이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로서 이미 周公의 著作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儀禮도 그리 이른것은 아니었다. 실사 우리들이 儀禮의 一部分이 周初에 있었던 것이라 認定한다더라도 800年의 變遷이 지나 갔으며 또 몇 차례나 面目을 一新하고서 비로소 高堂生의 손에 들어 갔던 것인지? 더구나 옛날에는 文字가 刻板되지 않고 完全히 口傳되거나 或은 簡略한 記述로서 되던 것이니 儀禮처럼 읽기 어려운 것은—나더러 暗誦하라고 해도 試驗에 合格하지 못할 정도니—800年이나 傳해지는 동안 亡佚 或은 變亂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옛날의 書籍은 書·詩·易·禮 등 몇 部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닐텐데 하필이면 몇가지 책만 남아 있는 것인가? 그것은 自然 모두 各各 原因이 있다. 즉 書는 史官에 存置되었고 易은 筮卜의 官에 存置되어 있었고 詩는 太師와 民間에서 口誦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西周以前의 書·易·詩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書·易·詩의 大部分은 그대로 東周 春秋의 것이 아닌지? 儀禮와 같이 읽기 어려우며 傳해지기 어려운 것이 도리어 西周初年에서 傳해

진 것이 조금도 原形이 變치 않았을 이가 있는지? 시험삼아 그 속에 있는 土冠禮의 頌詞를 본다면 그것은 모두 詩經으로부터 採擇된 것이다. 詩는 春秋末期에 이루어진 것이니, 그렇다면, 儀禮는 아마 詩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同時의 것이겠다. 또한 그 속에 있는 鄉射禮를 보면 『이에 周南의 關雎·葛覃·卷耳, 召南의 鵲巢·采芣·采蘋에 合樂<sup>20)</sup>하는데 樂工이 일어나지 않고(장님이기 때문에) 樂正에게 正歌가 具備되었다고 告했다』라는 말이 있다. 正歌는 바로 小雅라고 한다. 그러니 儀禮는 最少限 小雅·二南이 通行된 以後에 이루어졌다. 小雅·二南은 西周·東周間に 지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通行된 것은 반드시 東周인 것이다. 그러면 儀禮도 東周·春秋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儀禮의 一部分은 아마도 西周에는 이미 있었을 것이다. 禮는 社會習慣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聖인이 아무 根據없이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西周에서 慣習된 禮가 文字로 쓰여지고 固定的인 儀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比較的 僻 늦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17篇은 아마도 孔子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다. 孔子가 詩·書와 禮樂을 刪定했다는 傳說이 있지만 나는 孔子가 일찍이 詩書를 刪定했다는 것은 믿지 않지만 孔子가 禮樂을 刪定했다는 것은 도리어 믿고 있다. 이미 第3章에서 孔子가 樂譜를 刪定했다는 것을 말 한바 있다. 禮, 이 部分은 禮記·中脞에 의하면 『禮儀는 300이고, 威儀<sup>21)</sup>는 3,000』이라는 말이 있다. 大概是 周代의 文筆을 崇尚하여 禮節이 僻 번거로웠다. 孔子는 從來 禮를 자기가 남을 가르치는 중요한 科目으로 삼아 왔다. 그러면 禮節을 한바탕 개정하여 그것을 알맞게 하였으리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儀禮는 아마도 孔子의 역음인듯 생각된다. 諸君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가? 禮記 檀弓에 이런 말이 있다. 『恤由의 喪은 哀公이 孺悲로 하여금 孔子에게서 「土喪禮」를 배우게 하였으니 土喪禮는 이에서 책이 되었다.』 이것은 分明히 우리들에게 最少限 17篇 가운데 이 「土喪禮」篇은 孔子가 手定하였거나 孺悲에게 口授하여 文字化된 것이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편이 이러하다면 그 나머지 16篇도 孔子가 手定했거나 口頭로 傳하여 他人이 文字化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것인가. 또 두 가지 있는데, 우리들은 特히 이를 注意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儒家에서는 『三年喪』을 主張하고 있지 않는가

三年喪의 禮制는 어느 때부터 일어났는가. 그들은 遠古 때부터 傳해 내려 온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堯舜 때에 이미 行해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아래에 引用한 三段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懷疑하게 된다. 論語에 이런 말이 있다. 『宰我が 孔子에게 물기를 三年喪은 期間이 너무 오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고 하던 君子가 三年間이나 禮를 講論치 않으면 禮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三年間이나 樂을 講論치 않으면 樂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복은 곡식은 이미 다 먹어 없어지고 햇 곡식은 이미 登場할 뿐더러 나무를 끊어 불씨를 고쳐 놓게 되니<sup>22)</sup> 一週年으로 父母喪은 그쳤으면 좋을듯 합니다.』 孔子 말씀 하시기를 「父母喪을 당하여 이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어도,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말하기를 平安하겠읍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君子가 父母喪을 當하여서는 맛있는 飲食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音樂을 들어도 즐거운 줄 모르고, 좋은 집을 쓰고 살아도 평안한 줄 모른다. 그러므로 喪期를 짧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네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려무나」 宰我が 물러 나가자, 孔子 말씀하시기를 「宰我는 참으로 不仁의 人間이로다. 자식이 난지 三年만에야 비로소 父의 品安을 벗어나게 된다. 대개 三年喪이란 것은 天下의 通行하는 喪禮다. 宰我는 홀로 三年동안 父母의 사랑을 입지 않았던 것인가?』 가령 三年喪이 遠古로부터 傳해 내려와서 이미 制度가 定해졌다고 한다면 宰我が 이렇게 大膽하게 懷疑할 수 있겠으며 어찌 敢히 滅喪하자는 主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孔子도 이렇게 溫順하게 다만 宰我를 『자네가 편안하다면 하거나』라는 한마디로만 옥했을 뿐 필경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었을 것인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三年喪은 아마도 儒學에서 創造한 主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孟子에도 이런 말이 있다. 즉 滕定公이 죽었을 때 世子는 然友를 孟子에게 보내어 喪禮를 묻게 했는데 그 때 孟子는 三年喪을 主張하였다. 『然友가 服命하자 三年喪으로 定하였다. 父兄百官은 모두 贊成치 않고 말하기를 「우리 宗主間 魯나라의 先君들도 行하지 않았고 우리(滕)先君도 또한 行하지 않았었다. 자네에 이르러 이렇게 行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이말은 後人들이 僞造한 痕跡이 결코 없는 것이니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滕·魯의 先君들이 萬一 三年喪을 行하였다면 滕의 百官은 반드시 敢히 反對치 못했을 것이다. 이 點

釋註 20) 樂人의 歎唱과 함께 諸樂器를 合해서 演奏하는 것.

21) 禮儀에 맞아 威嚴있는 舉動을 한 禮의 儀式書.

22) 一年中에 四時의 取火가 다름. 봄에는 榆·柳, 여름에는 棗·杏, 季夏에는 桑·柘, 가을에는 柞·楸, 겨울에는 槐·檀에서 불을 만들어 씀.

도 三年喪은 儒家를 除外하고는 社會에서 通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墨家에서 儒家를 攻擊하는 때에는 恒常 이것을 가지고 焦點으로 삼았다. 또 禮記에도 이런 말이 있으니 더욱 證明할 수 있다. 『三年喪은 무엇인가』하고 묻자 情에 맞춰서 文을 세워 이로써 群(群)을 修飾한 것이니 親疏·貴賤의 節을 區別한 것이다. 損益할 수 없다…….」 「그런즉 어찌 期年에 이르는 것인가」 하자 「至親은 期年으로 끊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자 「天地가 이미 바뀌어졌고 四時도 이미 變하였으니 天地속에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象徵한 것이다. 「그런즉 어찌 三年이겠는가」 「더욱 융승하게 한 것이다」 期年 一年喪이다. 本來는 至親이라도 期年으로 그쳤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理由와 위에서 말한 宰我의 理由는 같은 것이다. 三年喪은 융승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至親은 期年으로써 끊는다.』라는 것이 原來의 禮이고 三年喪은 儒家에서 加重한 禮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一年喪이 참으로 理由있다. 現在 世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다. 人情의 正常이라 함을 알 수 있다. 本來 古代에도 이와같은 것이었는데 儒家가 加重한 理由는 도리어 充分치 못하다. 孔子는 『자식은 三年을 산 후에 父母의 품을 벗어난다.』라 말했다. 그러므로 子女는 父母의 喪을 三年 입어야 비로소 恩惠에 報答하게 된다는 것이다. 其實은 이것은 乳哺를 말함에도 不遇하다. 萬一에 子女가 자라서 한 사람이 되면 적어도 十餘歲가 되어야 한다. 報恩할 생각이라면 적어도 15년의 喪을 입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父母에 대한 情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一年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三年喪은 孔子의 主張이지 周公의 制度는 아닌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前人들이 이것을 周公이 制定한 禮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틀린 것일 것이다. — 왜 우리들이 이 問題를 자상히 議論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면 오로지 儀禮의 맨 마지막 篇은 모두 喪禮를 말하는 것인데 모두 三年喪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로써 이 5·6篇은 孔子의 손으로나 或은 儒家가 轉寫한 것이라 함을 推定할 수 있다. 물론 儀禮의 全部를 孔子가 創造한 것은 아니다. 鄉飲酒禮나 鄉射禮같은 것은 論語·禮記에 記錄된 것으로 보아 孔子時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孔子가 編定·成文化함에 不遇하거나 或은 아마도 孔子에게서 全部 나온 것일 것이다. 士喪禮는 孔子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나머지는 孔子가 審定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개 큰 矛盾은 없을 듯 하다.

儀禮의 年代는 위에서 이미 推定하였다. 以下에서는 附帶의 儀禮가 모두 몇 篇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 하겠다. 今文 17篇은 足本이 아니다. 漢書 藝文志

에 말하기를 『禮古經은 五十六卷이고 經은 七十篇이다』 (原註: 여기서 「七十」이란 두 字는 「十七」의 錯誤이라 함을 後人이 이미 밝힌 바 있다.) 「禮古經」이란 무엇인가 漢書 藝文志에 『禮古經은 魯淹中에서 나왔으며 孔氏學의 七十篇의 文과 비슷하나 三十九篇이 많다.』 (原註: 이 「七十」이란 두 字도 「十七」의 錯誤이라 함을 後人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西漢末以後의 古文家들은 今本 儀禮十七篇을 不完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今文家들은 이 十七篇을 足本으로 보고 있다. 그 39篇의 目錄은 唐나라 開元禮에 실리고 있으나 原文은 唐以後에는 이미 없어졌다. 後人들이 數十條를 모았으나 그 文體가 十七篇과 같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學者들의 懷疑를 惹起시켰다. 邵懿辰이 지은 禮經通論에 이르러서는 漢人이 偽造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今本 十七篇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冠·婚·喪·祭·鄉·射·朝·聘 등 8種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禮記에서는 이 8種을 孔門에서 가장 무겁게 다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十七篇은 孔門에서 傳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種以外的 禮가 從前에 있었는지 하는 것은 또한 말하기 어렵다. 投壺같은 것은 小戴禮記에 있고 麇臠같은 것은 大戴禮記에 있다. 다만 이는 모두 通行되지 않던 小節들이다. 아마 孔門에서 傳해진 것이 아닐 것이다. 孔門에서 傳해진 것은 다만 8種의 큰 儀禮였는데 이 8種은 十七篇外에 있는 것이 아니니 十七篇은 孔門의 足本임을 알 수 있다. 그 나머지 39篇은 漢儒가 끌어 모아 만든 것이다. 비록 亡佚되었지만 哀惜할 것 없다. 예컨대 孟子外篇을 趙岐가 깎아버린 것처럼 讀者들의 精神的 浪費를 많이 없애준 것이 아닐 것인가?

## 2. 周 禮

周禮의 來歷에 대해서는 漢書 藝文志에 說明이 없다. 다만 『周官經六篇과 周傳四篇』이라고만 記錄되어 있을 뿐인데 그것도 禮經뒤에 붙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隋書 經籍志에는 이와같지 않다. 周官經을 周官禮로 改名한 뒤에 儀禮 앞에 記錄해 두고 있다. 또한 말하기를 『漢나라 때에 李氏가 周官을——周官이란 周公이 制定한 한 官政의 法이지만——얻어서 河間獻王에게 올렸는데 多官 한 篇이 빠져 있었다. 獻王은 千金을 주고 이를 購入하려 했으나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考工記를 取하여 그 곳을 補記하여 六篇을 이루어 이를 받 치었다. 王莽 때에 이르러 劉歆이 처음으로 博士를 세워 世上에 通行하게 했다. 河南緜氏와 杜子春이 劉歆에게서 受業할 때 教授되었다. 以後에 馬融이 周官傳을 지어 鄭玄에게 傳授하였으며 鄭玄이 周官註를 달았다.』라고 하였다. 漢書 河間獻王傳에 있는 『獻王이 얻은 책

은 모두 古文으로서 先秦의 舊書이니, 周官·尙書……類이다.』라는 말에 依據했을 것이다. 實은 獻王傳의 周官이, 劉歆이 博士를 세우려 했던 周官禮인지의 與否는 아직 問題點이 있지만 이것은 일단 論外로 두겠다. 周禮의 來歷에 대해서 얘기한대도 다른 見解가 있다. 賈公彥의 序周禮廢興에서는 馬融傳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秦나라는……政治가 너무 酷烈하여 周官과 相反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秦始皇이 挾書를 禁할 때 特別히 疾視하여 책을 絶滅하려는 생각에서 모두 찾아 모아 태워 버렸다. 이 까닭에 百年間이나 隱藏하였다. 孝武帝가 처음으로 挾書의 律을 없애고 獻書의 길을 열어서, 山속이나 집속에 있던 책이 나왔으나 다시 秘府에 들어가서 五家의 儒學者들은 이를 얻어 보지 못하였다. 孝成皇帝에 이르러서 비로소 達才·通人들이 劉向의 아들 劉歆에게 가서 秘書를 校理함에 비로소 列序를 얻어 錄略에 썼다. 그러나 多官 한 篇은 亡佚되었으므로 考工記로 채웠다. 때에 儒家들이 아울러 나와서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그러나 오직 劉歆만이 홀로 알고 있었다. ……杜子春은 아직 있었는데…… 그것은 읽을 수 있었으며 그의 說을 알았다. 鄭衆과 賈逵가 가서 배웠던 것이다……』(現在の 後漢書 馬融傳에 이 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馬融傳은 아마 馬融의 周官傳일 것이다.) 序周禮廢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周禮는 成帝 때의 劉歆에서부터 일어나서 鄭玄에게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附和된 者가 殆半이었다. 그러므로 林孝存은, 武帝가 周官을 末世의 어지럽고 根據없는 책이라 함을 안다고 생각하여 十論七難을 지어 이를 배척했고 何休는 또한 六國의 陰謀의 책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이 上記한 글을 볼 때, 많은 놀라움이 생기는 것을免치 못한다. 첫째, 周官의 來歷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漢帝 때에 山속과 집속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漢나라 때에 李氏라는 이가 河間獻王에게 드렸다고 말한다. 둘째, 이미 나왔다면 왜 또 傳해지지 않고 隱秘되었으며, 隱秘되었다면 왜 또 百年이 넘어서 나타났는가? 셋째, 劉歆이 이것을 宣揚했는데 왜 여러 儒者들은 反對했는가? 當世에서만 그러했을 뿐 아니라 東漢 百餘年間의 儒家들이 모두 反對했는가? 즉, 鄭玄이 法를 지었을 때에도 또한 林孝存·何休가 책을 지어 反駁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周禮가 能히 成立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保存되어 온 것은 鄭玄의 功이 가장 많다. 그가 이를 儀禮앞에 펼쳐 놓았으나 이로 因하여 問題는 훨씬 많아졌다. 本書의 總論 三章에서 이미 말해 두었거니와 中國人으로서 가장 먼저 專門書를 지어 偽書를 攻擊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즉 林孝存·何休가 周禮를 가려낸 것이다. 그러나 繼續의으

로 最近에 이르기까지 孫詒讓·章炳麟 一派는 如前히 周禮는 周公의 太平한 政治를 위해 만든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들, 今文家의 色彩가 濃厚한 사람들은 모두 否認하고 있다. 今文家들은 周禮가 劉歆이 偽造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좀 더 公平하게 말한다면 劉歆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며 아마도 憑藉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겠다. 最近에 出土된 甲骨文에는 周禮에 나오는 몇字와 비슷한 것이 있다. 즉 『禮』 『獻』 같은 글자는 다른 책에는 없었으나 周禮와 甲骨文에는 모두 있다. 이로 因하여 周禮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뻐 하며, 이로부터는 아무도 敢히 그를 攻擊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其實은 이처럼 하찮은 證據로서는 「周禮가 周公이 만든 것」이라는 說은 確立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劉歆이 全的으로 偽造했다는 罪名은 若干 가별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이 책이 戰國 秦漢사이에 한 두 사람 或은 많은 사람들이 從前에 短篇의으로 制度를 말한 책에 根據하여 이를 빌려다가 자기 個人的 主張을 發表한 것이라고 본다. (黃宗羲의 明夷待訪錄같은 것이다.) 그 主張도 허공에서 날조된 것은 아니다. 一部分은 從前의 制度에서 나온 것이며, 一部分은 著者의 理想이다. 오직, 從前制度에 根據한 바가 있으므로 해서 古書로 證明될 수 있었던 것이다. 左傳에 실린 路館의 制度는 여기에 記載된 바와 같다. 그러나 또 全的으로 舊制에 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이다. 마치 孫文의 「建國方略」과 같은 것이다. 다만 이 책에서 完全히 周俗·周制에서 離脫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後人들은 周公의 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孟子와 禮記王制에서는 『侯國은 方百里』라는 말이 있는데 周禮에서는 『侯國 方五百里』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時代가 같지 않으므로 主張도 같지 않은 것이다. 後人들은 이를 모르고 억지로 同一視하니 自然 通하지 않는 것이다. 春秋와 戰國初에는 나라가 많고 國家 地域이 좁았으므로 侯國은 다만 百里면 되었으나 戰國末에는 나라가 적고 地域이 넓었으므로 自然히 侯國은 크게 될 수 있었다. 이로 因하여 더욱이 周禮는 戰國以後의 책이라 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劉歆은 新의 王莽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 싸웠고 自己를 위해 霸權을 다투었으니 약간 添加했었을 것은 自然 免치 못했을 것이다. 아마 十分의 一·二는 그러 했을 것이다. 이 점은 左傳과 彷彿케 한다. 우리들은 大概 이와같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대해서는 自然 周公의 책으로 믿지 않고 있다. 萬一 周公이 論한 것이라거나 或은 周代의 歷史로서 보고 資料로 삼는다면 말할 수는 없는 誤謬를 범할 것이다. 그러나 그 一部分을 갖다가 春秋戰國 시대에 한번 通行되었던 制度로 보고 그 나머지 一部

分은 政治學上의 理想的인 建國制度를 본다면 더 이상 훌륭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것이 戰國人의 作에다 劉歆이 덧붙인 것이라 해서 바로 價値없는 것으로 看做해서는 안된다. 戰國時代에 偉大한 人才가 이와같이 偉大한 理想을 周禮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光榮이지 우리들의 수치가 아니라 함을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萬若 周公의 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의 價値를 낮추어 그것을 僞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한 덧붙여 말할 것은, 바로 考工記다. 隋書 經籍志에 이미 漢의 河南獻王이 考工記로써 周禮 冬官篇을 補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 지금 周禮의 前 5篇과 後篇은 分明히 二部로 된 책이다. 그런데 考工記의 年代는 從來 周禮以前에 만들어졌다고 看做되었다. 文體가 比較的의 優雅하여 敘述한 記事도 確 事實인 것으로 理想的인 말이 없기 때문에 周公이 周禮로 만들었다고 迷信하는 사람을 除外하고는 이 말을 承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도대체 考工記는 어느 때의 책인가? 어떤 사람은 周公의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西周의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東周初의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모두 이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우리들이 다만 本文을 한번 훑어 보기만하면 戰國末年의 책임을 곧 알 수 있다. 설사 그 책의 첫머리에서 바로 『粵에는 罍이 없고, 燕에는 函이 없고, 秦에는 廡가 없고, 胡에는 弓車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燕은 春秋中葉에 이르러 비로소 諸侯들과 往來하였으며, 秦은 東周初에 비로소 나라를 세웠고, 粵과 胡는 戰國末葉에 비로소 中國까지 이름을 傳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考工記는 戰國末葉의 책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周禮의 前 5篇보다 약간 이른 것이다. 그러나 決코 孔子以前의 것은 아니다. 그 自體에 대해서는 從來에 아무도 懷疑한 일이 없었다. 그의 信憑度는 前 5篇에 比하여 確 높다. 漢儒들이 이를 꼭 周禮에 補入하였으니 참으로 웃으운 일이다.

### 3. 禮 記

이제 三禮중에서 맨 나중의 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두 部의 책이 있다. 한 部는 小戴가 編한 것이며, 한 部는 大戴가 編한 것인데 모두 禮記라 불리운다. 禮記는 眞僞問題가 없다. 모두 西漢末 劉向 때에 이미 있었던 책이다. 그밖에 작은 問題가 있는데 二篇은 馬融이 덧붙인 것이라함은 過去 사람들이 이미 研究해 내기를 그런 일이 없다고 되었다. 그러므로 禮記는 전적으로 西漢以前 것이며 東漢以後의 것은 없다. 그 年代를 말하자면 漢書 藝文志에 이르기를 『七十子

後學者가 記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七十子和 그 後學者」라는 말인지? 아니면 「七十子以後의 學者」인지 알 수 없다. 後者의 解釋에 依하면 戴德·劉歆이 이르기까지가 모두 「七十子이후의 學者」가 된다. 그러면 本來 一種의 叢書로서 얼마간은 增減이 되어도 괜찮은 것이며 決코 한 시기의 한 사람의 記述은 아니다. 現在 問題는 「七十子」의 記述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 孔子以前의 作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後者의 問題에 關하여서는 大戴禮記에 夏小正 한 篇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참 오래된 책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大禹가 지은 것으로 禹貢과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틀린다. 夏小正에서 말한 星象은 天文家의 推算에 依據하건대 月令이 책으로 나온 以後에 비로소 있었던 것이거나 적어도 同時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夏小正을 大禹의 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前人들은 夏가 朝代名이므로 夏小正은 夏書라고 認定했으나 實은 夏正은 建寅이었는데 夏小正을 지은 者도 建寅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에 이 名稱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우리들이 前文에서 이미 말한바 있다. 이 밖에 佚禮經은 後人이 輯出한 것인데 이것은 逸周書와 같은 것이다. 逸周書의 年代는 이미 問題되고 있지만 아마 一部分은 孔子의 後學들이 記述했을 것이다. 그러나 大戴禮記 冠冠篇의 頌詞는 바로 漢나라 昭帝가 冠禮를 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 禮記와 같다고해서 古禮라고 認定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部分의 佚禮에도 一部分은 古禮가 있지만 大部分은 孔子以後의 것이다. 禮記의 大部分은 儀禮를 解釋한 것이다. 그러다가 自然히 儀禮위에 있었으니 問題되지 않는다. 말을 도리켜 말하면, 七十子가 記述한 것이 있는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 大戴禮記에는 管子 10篇이 있는데 漢書 藝文志에는 管子 18篇이 있다. 혹은 같은 책으로서 管子가 만든 것으로 認定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漢書 藝文志에는 또 子思子 23篇이 있는데 沈約도 이를 보았다고하며 中庸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한다. 小戴禮記에는 四篇이 있는데 子思가 지었다고 한다. 아마도 子思子에서 取한 것인지 모르겠다. 小戴의 緇衣는 劉向의 말에 依하면 公孫尼子의 作이라고 한다. 史記도 樂記는 公孫尼子의 作이라고 말한다. 漢書 藝文志에는 公孫尼子 28篇이 있는데 六朝에도 또한 있었다. 다만 禮記에 根本을 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各書는 모두 없어졌으니 眞僞를 가릴 길이 없다. 萬一 모두 眞짜라면 禮記의 이 몇 篇이 가장 이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만, 管子篇은 비록 存在하고 있으나 大戴에 실린 10篇은 文字가 淺薄하여 春秋末期의 管子가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으며 도리어 漢初의 諸篇과 恰似하다. 비록 管子의 이름이 題로 붙어 있으나 敢

히 確定지을 수는 없다. 또한 中庸같은 것은 沈約의 말로는 子思子の 것이라고 하지만 思想의 系統으로 論하면 孟子뒤에 오는 것이다. 文義는 崔述에 의하여 考證되었는데 孟子的 것을 베낀 것이라 한다. 아무튼 子思子是 孔子思의 作인가 라는 점도 또한 問題이다. 禮記는 「荀子」에서도 많이 베끼고 있다. 예컨대, 修身篇 勸學篇은 大戴禮記의 禮 三本篇과 勸學篇으로 變해졌다. 우리들은 荀子が 다른 사람의 것을 抄襲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 二篇의 思想은 確實히 荀子の 思想이다. 禮記가 荀子の 이름을 거기에 덮어 씌운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仔細히 모른다면 어찌 그 年代를 百餘年 앞당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 밖에 月令篇. 呂氏春秋. 淮南子도 모두 들어 있다. 文中에 「太尉」라는 글자가 있는데 太尉는 秦官이다. 그러므로 모두들 呂不韋의 作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책은 「太尉」를 「太封」이라 쓰고 있지만 그것도 옳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모두 小節이며, 太尉가 있다고 해서 後代의 것이 되지 아니하며 太尉가 없다고 해서 古代의 것이 되지도 아니한다. 아무튼 戰國末葉의 책이다. 또한 三制 한 篇이 있는데, 經典釋文에서는 廬植의 말을 引用하여 漢 文帝 제의 博士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며 이것은 周代의 制度인데 漢 文帝 제의 것은 아마 史記 封禪書를 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篇의 制度는 孟子가 말한 것과 틀리니 簡代의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더욱 우스운 일이다. 그들은 모두 이것들도 또한 戰國末葉의 一種의 理想的인 建國方略이라 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全體禮記의 맨 끝의 한 篇은 大戴의 公冠이 漢 昭帝 제의 나온 것으로 禮記에 대해 몇마디 總論한 것이다. 그 性質은 孔門에서 禮를 論한 叢書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儒家의 思想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禮敎思想이 가장 發達하고 細密하게 되었을 제의 產品이다. 그것은 七十字의 後學, 특히 荀子一派에서, 各各 그의 스승들의 言行을 記錄한 것으로 后倉·戴聖·戴德·慶普 등에 의하여 集하여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의 大部分은 戰國中葉과 末葉에 이미 계속 나온 것이고 小部分은 西

漢前本期에 儒學者들이 계속 덧붙인 것으로서, 그것의 한 篇 한 篇은 모두 獨立될 수 있는 것이며 上·下篇이 連關되고 있지 않다. 儀禮·周禮와도 또한 다른 點이 있다. 以上으로 禮記를 끝냈으며 三禮도 모두 마친 셈이다.

× × ×

偽書가 가장 많은 것은 子部가 으뜸이다. 漢書藝文志 중 九流·兵書·方技·三略에 나열된 古書들은 班固가 이미 그 殆半이 後人의 依託이라 함을 註에서 밝힌 바 있다. 그 後로는 僞作이 더한층 甚하여 아무리 가려내도 다 가려낼 수 없게 됐다. 이제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現存書이다. 그 先後는 依託된 年代의 古今順으로 한다. 책이 비록 僞書는 아닐지라도 그 著者의 年代가 問題되는 것도 또한 이를 자상히 말하고자 한다. 萬一 子部에 屬하지 않거나 或은 兩漢 이전의 것이라고 依託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한다.

## 1. 本 草

舊題는 神農의 著로 되어 있다. 상고컨대 本草란 이름은 漢書 平帝紀 및 樓護傳에서 처음 보이고 있는데 모두 方術과 나란히 나와있으며 專門的인 書名으로 되어 있지 않다. (原註 1) 藝文志 중에 醫經·經方 두 欄에 羅列되어 있는 것에는 모두 「本草」라는 책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原註 2) 그렇다면 西漢末年에 비록 本草를 研究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著書는 아직 本草라 이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本草로서 책을 이름지은 것이 著錄에 가장 이르게 보이는 것은 晋나라 荀勗의 中經簿에 있는 子儀本草經 1卷이다. (原註 3) 다만 神農이 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子儀도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다. 梁나라 阮孝의 七錄에 비로소 神農本草五卷을 記錄하고 있다. 神農本草는 두 卷으로서 蔡邕·吳普·陶宏景……등의 本草가 16種이 있다. (原註 4) 그러나 隋唐에 이르러 殆半이 亡佚되었다. 隋書 經籍志에는 神農本草 8卷이 있을 뿐이다. 四卷으로 된 一種과 三卷으로 된 一種은 神農本草經이라 이름하고 있다. 이들 各家의 內容과 神

- 原註 1) 平帝紀: 「天下가 方術·本草를 아는 者를 천거케 하다.」樓護傳: 「樓護는 醫經·本草·方術 등 數十萬言을 외었다」  
 2) 孫星衍이 校正한 神農本草經序: 「孫星衍註: 藝文志에는 神農黃帝食藥 7卷이 있는데 今本은 「食禁」으로 訛傳되었다. 賈公彥의 周禮醫師疏에는 그 글을 引用하여 「食藥」이라 바르게 쓰고 있다. 宋人들은 이를 살피지 못하고 드디어 本草는 七略속에 있는 책이 아닐것이라 疑心했다.」이것도 一說이 될 수 있으나 안된다.  
 3) 賈公彥의 周禮疏 參看.  
 4) 隋書經籍志 自注參看. 蔡·吳·陶 세사람을 除外하고도 또한 隋費·秦承祖·瑋瑋·李謐之·徐叔繡·甘澹之·趙贊 등 諸家가 있다. 책의 卷數는 1, 2, 3卷부터 5, 6, 7, 9, 10卷까지 일정치 않다. 이로써 各家의 內容도 모두 같지 않거나 懸隔한 差異가 있는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5) 隋書에는 따로 甄氏本草 3卷이 있는데 自注가 없다. 本草經 4卷의 註에는 『蔡英撰』이라 하였고 本草 二卷註에는 『徐大山撰』이라 했다. 이에 根據한다면 隋唐에 남아 있던 本草는 各家는 서로 상관이 없으며 一家에서 著書할때도 本草經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며 神農이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七錄에 열거한 諸家의 本草의 內容은 또한 모두 神農本草와 맞아야 할 必要는 없다. 本草를 神農에게로 돌리는 것은 특히 그 중의 一家의 謬이다.

農本草의 內容과의 異同은 지금은 考證할 수 없다. 各自 單行本으로서 알길이 없다. (原註 5) 그러나 蔡邕·吳普는 東漢三國 年間의 人物인즉 東漢三國 年間에도 이미 本草로서 책 이름을 붙인 것이 있던 것이다. 中經簿에는 神農本草가 없고 七錄에는 있다. 그런즉 神農이 本草를 지었다는 說은 南北朝에서 시작된 것이라 함은 모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醫學은 戰國時代에 있어 아마 이미 發達되었을 것이다. (原註 6) 戰國시대는 諸子들이 託古하여 스스로를 높이든 메인만큼 當時에 이미 神農이 百草를 맛보았다는(藥材를 求하기 위해) 說이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許行이 神農의 말을 한 것 같은 것이다. 西漢 一代에 있어 醫를 말하는 사람을 가르켜 方術을 研究한다고 했고 藥을 말하는 사람을 가르켜 本草를 研究한다고 했으며 醫經·方術·本草 등의 책들은 이미 數十萬字나 되었다. 漢書 藝文志에 收錄된 醫經·經方의 책이 또한 500권이 나 된다. 그러나 本草가 처음 나온 것은 이때부터 아닌가 한다. 東漢 三國年間에 처음으로 本草로서 책 이름을 지었다. 吳普는 또 華佗의 弟子인데 今本 本草는 華佗·吳普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或은 吳普 本草로서 基礎를 삼은 것이라 보는 것도 또한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中經簿의 子儀本草는 或 그 때의 책일지도 모르겠다. 그 때에는 애초에 神農이 本草를 지었다는 說이 없었다. 이른바 某某 本草라는 것은 特히 某某가 藥性을 研究해서 지어낸 책이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千篇一律의으로 모두 반드시 神農을 祖述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晉나라 사람들이 清談할 때에 또한 託古하기를 즐긴 것은 戰國과 恰似하다. 本草를 神農의 이름에 돌린 것은 아마 晉代에서 빚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梁人의 七錄에서는 마침내 神農本草 및 某某本草經이 있게 되었다. 그 때 舊經은 단 한 卷뿐으로 藥은 365種이 있었다. 宏景은 名醫別錄을 증가시켰는데 역시 365種이 있다. 그리고 註釋이 7卷(原註 7)이 있다. 이 뒤로 점차 증가되어서 6·7倍(原註 8)에 이르렀지만 그냥 神農의 이름에 假託하고 있다. 이것이 荒唐한 誤謬라 함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舊經 1卷이라는

것도——俗醫들은 神農의 作品으로 믿고 있지만——南北朝의 사람들도 이미 믿지 않으며, 宋人들은 東漢末 사람이 編述한 것이라고 斷言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소리다. 陶宏景 本草의 序에『軒轅以前은 文字가 傳해지지 않아 藥性의 主要한 것은 아는 사람끼리 서로 傳해졌으나 桐君·雷公에 이르러 編簡에 著述되었다. 이 책은 마땅히 素門과 같은 部類에 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陶氏는 이미 神農이 本草를 지었다는 說은 堅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여기에 나온 郡縣은 바로 後漢 때의 制度이니 아마 張仲景 華元化 등이 記述한 것이겠다.』라고 말했다. 同時에 좀 쳐져서 北齊의 顏元推도 또한 같은 結論(原註 9)을 내리고 있다. 宋에 이르러 晁公武의 郡齋讀書志에서 비로소 이로 인하여 곧장 本草는 張儀 華陀 등이 編述한 것이지 神農이나 相君·雷公이 지은(原註 10) 것이 아니라고 認定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東漢三國年間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宋齊年間에 이미 規模가 成立되었던 것이다. 著者의 姓名은 비록 確實히 指摘하지 못하겠지만 著者의 年代는 東漢末에서부터 宋齊사이까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定論으로 삼을 수 있다. 萬一 俗說을 固執하여 證據를 附會할 것,——예컨대 淸人 孫星衍의 所論——은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原註 11)

2. 素問·靈樞·甲乙經

舊題는 모두 黃帝의 著로 되어 있다. 그 誤認는 本草를 神農의 著라 이름 붙인 것과 서로 같다. 생각컨대, 醫學은 戰國時代에 이미 솟아나는 氣運이 있었고, 呂氏春秋에도 攝生·治病을 討論한 篇이 많이 있지만 모두 哲理에 根本을 두고 있는 것이다. 戰國時代의 學界에서는 서로 託古를 다루었고 陰陽 五門의 論도 또한 盛하였었다. 지금 素問에 黔首·夜半·平旦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大概 秦人들의 用語이며, 또 失王·失侯 등의 말도 漢代에 새로 나온 事柄이다. 그런데 陰陽五行으로서 病理를 解釋한 것은 陰陽家가 盛行된 뒤에 影響을 받은 것이다. 全書의 體裁는 黃帝와 岐伯과

原註 6) 先秦의 遺書에는 醫理 및 醫生의 實蹟을 기록한 책이 많이 있다.

- 7) 陳脈系의 直齋書錄解題에 依據하건, 陶宏景이 注한 本草는 隋書開元 이미 亡佚되었고, 그 名醫別錄은 本草舊文에 混入되어 아직 存續되지만 가려낼 수 없다.
- 8) 直齋書錄解題:『唐顏斐기 또한 藥을 114種으로 증가시키고 20 卷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唐本草라고 한다. (宋나라) 開寶年間에 또 133種을 더하였고 蜀孟昶기 증가시켰는데 이것을 蜀本草라고 한다. 嘉祐중에 馮錫 林億 등이 校正을 하고 다시 補註하여 宋書으로서 달리 써서 區別했는데 新舊藥 1,082種이다. 大體 完備된 것이다. 지금(唐) 慎微가 다시 더 붙여 만든 것이 있다』唐氏의 本은 이른바 大觀本이다. 後에 明人 李時珍기 또 本草綱目을 만들면서 篇幅을 늘렸다.
- 9) 顏之推의 家訓:『本草는 神農의 著連인즉 子貢·朱莖·趙夙·常山·奉高·眞定·臨淄·馮翊 등 郡縣에서 諸藥物에서 나오고 있다는 記象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後人이 접어 넣은 것이지 本文이 아니다.』
- 10) 郡齋讀書志:『魏書에 後漢기 郡縣名이 있는 것은 大抵 上古時代에 文字로 정착되지 못하고 그냥 스승·제자사이에서 口傳되다가 張儀·華佗에 이르러 編述된 것이다.
- 11) 孫氏가 校正한 神農本草經序에 詳述되었는데 그 말은 가릴만한 값어치가 없다.

의 사이에 생긴 問答에 依託하고 있으니 이는 또한 莊子에서 黃帝와 廣成子와의 사이에 생긴 問答에 依託한 것과 같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素問의 全書는 黃帝의 著述이 아니다. 그 一部分은 先秦의 遺說을 잃지 아니한 것이겠지 만 그 大部分은 兩漢으로부터 三國에 이르기까지 倉公·張機·華佗같은 무리들이 附加하여 이룬 것이다. 漢書 藝文志에는 記錄되지 아니했는데 黃帝內經은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이 곧 이 책이라 말하는 것은 또한 附會하는 말이다. (原註12) 靈樞는 素問에 比하여 더욱 늦게 나왔다. 素問은 오히려 隋書 經籍志에 收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니 隋唐以前의 책이라 할 수 있다. 靈樞는 漢書 藝文志·隋書 經籍志·唐志에 모두 收錄되지 않고 있으며 唐의 王冰은 오히려 黃帝內經 18卷의 9라 한다. 내저 이것을 누가 믿겠는가. 宋나라 晁公武의 郡齋讀書志는 바로 或者의 說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好事家가 皇甫謐이 모은 內經 倉公論속에서 빼내어 古書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證據는 들지 아니했다. 淸나라 杭世駿의 道古堂集 靈樞經 跋文에서 처음으로 『내가 보기에 그 文義는 淺短한 것으로 素問의 말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素問의 것을 竊取하여 이를 퍼 넣힌 것 같다. 그것은 王冰에게 僞託한 것으로서 알 수 있다. 後人에 그 책을 傳授받은 사람이 없다가 宋나라 紹興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다. 그러나 高保衡·林億 등의 校正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중 十二經水 한 篇은 黃帝 때에 이런 이름이 없었다. 王冰이 特히 自身이 본바에 依하여 妄定되게 억탁한 곳이다.』 이렇다면 靈樞는 또한 甲乙經 보다 늦게 나온 것이다. 이것을 唐虞以前의 책으로 본다는 것은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다. 甲乙經은 漢書 藝文志에는 收錄되지 않았고 隋書 經籍志에는 收錄되긴 했으나 著者의 姓名은 記錄되지 않았다. 또 『黃帝』란 두 字를 위에 붙였기에 世俗에서는 이를 곧 黃帝의 책이라 하고 있다. 지금 卷首에는 晋나라 皇甫謐의 序가 있는데, 『七略 藝文志에 「黃帝內經 十八卷」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은 鍼經 九卷, 素問 九卷해서 모두 18卷이 있으니 卽 이것이 內經이다. ……또한 明堂孔穴鍼灸治要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黃帝·岐伯이 뽑은 것이다. 三部는 같은 얘기인데 文章이 重複된 곳이 많고 錯誤가 한 두 곳이 아니다. 甘露 중에, 「내가 ……三部를 撰集하였는바, 事類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했으니 浮辭를 削除하고 重複을 除去해서

그 精要를 記했으니 12卷에 이르렀다.』라고 했고 그리고 책명은 黃帝三部鍼灸甲乙經이라고 붙이었다. 생각컨대, 皇甫謐은 鍼經素問을 黃帝內經이라 억지로 본 것은 純全히 個人的인 臆測에서 나온 것이다. (原註13) 明堂孔穴鍼灸治要是 漢書 藝文志에 收錄되지 못했으니 卽 西漢以前의 책은 아니다. 그런즉 三部를 합하여 甲乙經이라 하는 것이다. 甲乙經은 바로 皇甫謐의 책이니 黃帝의 것과는 아무런 關係 없다. 要컨대, 素問은 漢人에서 나온 것이고 (原註14) 甲乙經은 晋의 皇甫謐에서 나온 것이며 靈樞는 唐나라 王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古人의 遺說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은 可하지만 黃帝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僞書를 몰아치는 것이 된다.

### 3. 陰符經

옛날에는 黃帝의 지음이라 되어 있다. 戰國策에는 『蘇秦이 太公陰符之謀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陰符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史記에는 『蘇秦이 周書 陰符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 책은 어떤 이름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다. 漢書 藝文志에는 陰符는 실지 않고 太公謀 81篇이 있다. 이것이 同一한 책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隋書 經籍志에는 太公陰符鈐錄 한 卷과 周書陰符 아홉 卷이 있으나 어느것이 戰國時代의 책인지는 모르겠으며 또한 經이라고도 부르는 않고 있다. 唐志에는 集註陰符經 한 卷이 있는데, 太公·范蠡·鬼谷子·張良·諸葛亮·李涼風·李筌·李治·李鑿·李銳·陽晟등 열 한 사람의 注로 된 것이다. 그리고 驪山母傳陰符玄義 한 卷도 있는데, 註에 『李筌이 嵩山 虎口巖의 石壁에서 黃帝陰符本을 얻어서 魏나라 道士 寇謙之가 名山에 傳한 것』이라는 題를 붙이다. 李筌이 驪山에 올라 갔을 때 老母가 그 說을 傳했다.』라는 말이 있다. 宋나라 黃庭堅은 말하기를 『陰符는 李筌에게서 나왔으니, 그 글은 잘 읽어 보면 黃帝가 쓴 책이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兵家의 說이 섞여 있는 것인데 또한 太公·范蠡·鬼谷·張良·諸葛良이 訓註하였다. 妄說하고 있으니 더욱 可笑롭다』고 하였다. 淸나라 姚際恒은 『반드시 寇謙之가 지은 것으로서 李筌이 이를 얻은 것이다……. 或者는 李筌이 지은 것이라 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다.』라고 했다. 王謨는 말하기를 『陰符는 太公이 지은 兵法인데 이것은 黃帝가 지

(19面 右段에 繼續)

原註 12) 이 一段은 姚際恒의 古今僞書考의 說을 많이 採錄하였다.

13) 亦是 姚際恒의 說을 採錄한 것이다.

14) 四庫全書總目: 『漢書 藝文志에 黃帝內經 18篇이 실렸는데 素問의 이름은 없다. 後漢 張機의 傷寒論에 이를 引用하여 비로소 素問이라 불렀다. 晋의 皇甫謐甲乙經序에는 鍼經 九卷, 素問九卷이라 하였는데 모두 內經으로 삼고 있어 漢書 藝文志의 數와 一致되고 있다. 그런즉 素問의 이름은 漢晋間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隋書 經籍志에 비로소 記述되어 있다.』 이것이 비록 內經 卽 素問이라 認定한 것이지만 實은 素問이 漢人에서 나온 것임을 證明할 수 있다.



郭再祐 字는 季綏, 玄風 사람으로 宣祖 때 사람. 名 臣錄, 芝峰類說 等の 책에 보인다.

5. 順道大師, 難陀大師, 阿道和尚, 朗智法師, 普德和尚, 慈藏法師, 良志法師, 元曉法師, 義相法師, 密本法師, 道義國師, 眞表律師, 眞鑒國師, 梵日國師, 哲鑒國師, 無染國師, 道憲國師, 洪陟國師, 普照國師, 慧覺尊者, 麟覺國師, 道誥國師, 無學妙嚴尊者, 懶翁禪師, 達空和尚, 無準禪師, 普愚, 混修, 覺空, 正心, 智嚴, 一禪, 靈觀, 休靜, 志常, 惟政, 洪堅, 彥機, 忠徽, 守初 等 東方의 著名한 佛家의 事蹟.

6.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 곧 歷代歌(陳復昌 作), 効善指路歌(曹南溟 作), 冤憤歌(忍齋 洪暹 作), 倪仰亭宋純 作), 關西別曲(岐峰 白光弘 作), 關東別曲(松江 鄭澈 作), 思美人曲(松江, 作) 續美人曲(松江 作), 將進酒(松江 作), 江村別曲(五山 車天輅 作), 怨婦辭(許筠의 妾 作), 流民歎(玄谷 趙韓韓 作), 牧童歌(休窩 任有後 作), 孟嘗君歌(無名 氏 作) 等 우리 東人의 지은 歌曲에 對한 評語.

7. 新羅 末葉부터 李朝까지의 名公 碩儒의 文集과 號, 別號 一覽表.

8. 우리 나라 俗談과 및 그것에 對한 解釋 等 다른 冊子에서는 얻어 볼 수 없는 것도 적지 않고, 高見과 卓說도 많음을 본다.

奎章閣本(現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所藏 寫本)을 調査하건대

每面 10 行, 每行 20 字, 總 87 丁, 30.4×20.6cm, 2 卷 1 冊에 지나지 못하는 小冊子지마는, 그 內容도 內容이거니와, 그 見解의 卓越性 等 에서 凡庸書와는 同日에 論할 수 없다. 더우기 印本이라고는 오직 1 本을 嶺南大學校에서 볼 뿐이지마는, 寫本은 國內 國外에 널리 流布되어 있어 本書가 名著임을 말해 주고 있다.

本書의 著者 洪萬宗은, 그 字는 于海고 號는 玄默子 本貫은 豐山, 벼슬은 僉知中樞에 이르렀다. 그 著書로는 이 旬五志 外에도

◇ ◇ ◇  
(9面에서 繼續)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이 많다.

이와 같은 問題들은 하루 아침에 解決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現在 圖書館界 人士는 勿論 關係 當局이나 國家에서 많은 關心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므로 곧 解決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圖書館 運營 全般에 걸쳐 先進 諸國에 比하여 뒤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先進 諸國과 어깨를 같이 하여 國民文化 向上에 寄與할 밝은 展望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歷代總目……中國 太古 帝堯 元年에서 明 章宗에 이르기까지의 歷代 帝王의 帝都, 在位年數, 改元, 生詩及 陵墓 其他 顯著한 事蹟을 略述한 史書, 寫本.

詩話叢休……1652 年에 엮은, 4 卷 4 冊의 漢詩의 詩話集으로서 東方의 詩大家·名家로 <集>이 있어 世上에 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包括하여 남김이 없다.

小華詩評……高麗 及 李朝의 有名한 漢詩를 品評한 것으로서, 세상에 盛行되어 諸 文士에게 稱賞되었다. 1 卷 1 冊의 寫本.

菴葉志譜……閭里의 瑣語와 村野의 劇談 76 條를 모아 엮어 놓은 우리 나라 說話集으로서 1 卷 1 冊의 寫本 등이 있는데, 어느 거나 名著로 되어 있다는 건 그가 非凡한 學者임을 說明해 주고 있다.

또 그는 博學強記하고 그 때 名流인 金栢谷·鄭東溟 任休窩·洪晚洲 等を 師友로 삼았고. 젊어서 詩를 鄭東溟에게서 배울 적에 東溟이 자주 칭찬했고, 詩를 잘 하는 이로도 有名했던 것이다. 그는 仁祖 21年(1643 A. D.)에 나서 英祖元年(1725 A. D.)에 卒한, 이름난 詩人이요, 學者였던 것이다.

— <附 記> —

순오지에 대해서 汶波文庫(現 嶺南大 도서관 內) 도서관목록(62面)에 의하면, 「旬五志 洪萬宗 著, 2 卷 1 冊, 印本 25.3×17.5cm, 序 金得臣」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 <印本> 이라면, 想必 唯一 無二의 <印本 旬五志>라 하겠다. 그러나 筆者가 지난 5월 21일 친히 現地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그 文庫 所藏 圖書는 정리가 完了되지 못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實物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책 크기가 1959年 7월 20일 文林社 刊 油印本과 같았고 그 油印本 旬五志를 그 文庫 中에서 목격 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前記 <印本> 이란 다른 아닌 文林社 刊 油印本 旬五志 그것이 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 1969. 5. 24. 筆者 追記 —

◇ ◇ ◇  
(17面에서 繼續)

은 것이라 함은 실로 誤謬이다.』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글이 簡潔한것이 唐人의 글 같지 않다. 姚際恒·王謨의 말이 確實히 옳다. 다만 반드시 太公이나 寇謙의 作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著作時期를 戰國 末葉에 두고 繫辭·老子와 더불어 같은 時代로 보는 것이 옳다. 그 思想은 아마도 이 두 책과 가까운듯 하다.

(次號에 完)